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및 시사점

2020.11

CONTENTS

I. 서론

II. 변액보험 시장 및 운용 현황

1. 변액보험 시장 현황
2. 변액보험 펀드 운용 현황

III.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1. 유형별·기간별 수익률 비교
2. 펀드유형별 수익률 비교
3. 보험사별 운용수익률 비교

IV. 결론

정나라 선임연구원

02-3774-6979 | nara.jung@miraeasset.com

< 요약 >

- 변액보험은 투자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에게 선호도가 높으나, 다른 투자상품처럼 투자결정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효과적인 운용전략이 필요함.
 - 본 리포트에서는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 데이터를 활용해 변액보험의 투자와 수익률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의 변액연금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봄.
- 과거 10년(2010~2020년)간 변액보험 전체 자산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외투자 및 채권형의 증가세가 눈에 띈.
 - ① 해외투자 증가세가 2016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12.1%)임.
 - ② 금리하락추세로 인해 채권형 비중이 2010년보다 4배 이상 높아져, 향후 펀드 수익률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을 분위별·기간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과 시사점이 나타남.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의 5가지 특징과 시사점		
5가지 특징	사실	시사점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형보다 주식형 수익률이 우수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2px; margin-bottom: 5px;">3년 수익률</div> 해외주식 > 국내채권 > 해외채권 > 국내주식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2px; margin-bottom: 5px;">5년 수익률</div> 해외주식 > 국내주식 > 해외채권 > 국내채권	>>> 변액연금 등 장기투자자산은 채권형에 집중하기보다 주식형에 고루 배분할 필요
장기투자시 해외주식형 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음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2px; margin-bottom: 5px;">5년 수익률</div> 해외주식 > 국내주식 > 해외채권 > 국내채권 56.3% > 23.0% > 18.7% > 11.9%	>>> 적극적인 글로벌 자산배분이 필요함
과거 금리하락에 따른 수익률 상승으로 채권형 비중 증가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2px; margin-bottom: 5px;">국내채권형 비중</div> 2010년 7.2% → 2020년 29.2%	>>> 향후 채권 펀드 성과가 저조할 것으로 보이므로, 수익률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해외채권펀드 수익률은 펀드별 편차가 큰 편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2px; margin-bottom: 5px;">해외채권형 5년 수익률</div> 수익률 0~10% vs. 수익률 25%이상 8.8% vs. 19.1%	>>> 시장 전체 추이 뿐 아니라 개인의 펀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주식형과 채권형 모두, 국내보다 해외펀드의 수익률이 높고 편차도 더 큼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2px; margin-bottom: 5px;">5년 수익률 중위값</div> 해외주식 > 국내주식 > 해외채권 > 국내채권 35.6% > 20.1% > 16.7% > 10.0%	>>> 주식, 채권 모두 해외 비중을 늘리고, 펀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함

I. 서론

- 2019~2020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분기당 3천억~6천억 수준으로, 보험료 적립금은 105조에 달함. 이는 저금리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고, 노후보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도표 1> 변액보험 계약 통계

(단위: 건, 억원)

	2019년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신계약건수	86,008	72,787	83,989	65,279	68,095	59,183
수입보험료	44,096	45,452	45,224	42,101	43,072	40,294
초회보험료	3,126	5,103	5,788	4,146	5,955	4,900
보험료적립금	1,043,548	1,052,607	1,049,034	1,073,076	978,936	1,050,981

자료: 생명보험협회 상품유형별통계(2020년 2분기)

-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투자상품과 달리 종류에 따라 ‘최저보증’과 ‘연금지급’, ‘중도인출’ 기능 등이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원하기보다는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상품임.
- 하지만 변액보험 역시 다른 투자상품처럼 운용 포트폴리오의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효과적인 운용방법과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본 리포트에서는 변액보험의 펀드 수익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액보험의 투자와 수익률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의 변액연금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다만 본 리포트에서는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펀드의 단순 수익률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고객 개인이 체감하는 수익률과는 값이 다를 수 있음. 펀드 수익률만을 분석한 이유는 상품에 따른 수익률 차이가 아닌 투자 포트폴리오에 의한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기 때문임.
 - 펀드 수익률 자료 출처: 생명보험협회 공시실(2020년 9월 말 기준)

II. 변액보험 시장 및 운용 현황

1. 변액보험 시장 현황

- 변액보험 시장의 규모는 2020년 2분기 기준 약 105조 981억 원으로, 변액연금(45.5%)과 변액유니버설(41.6%) 상품이 시장의 대부분(87.1%)을 차지함.

<도표 2> 변액보험 종류별 보험료적립금

	금액(억원)	비율(%)
변액종신	54,269	5.2
변액연금	478,105	45.5
변액유니버설	437,272	41.6
보장성	241,060	22.9
저축성	196,212	18.7
변액기타	81,335	7.7
합계	1,050,981	100.0

자료: 생명보험협회 상품유형별통계(2020년 2분기)
 변액기타에는 회사별로 변액적립보험 및 변액CI보험 등이 포함됨

- 변액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는 총 22곳으로 이들이 판매중인 변액보험 상품은 총 181개, 변액보험자금이 운용되고 있는 펀드는 총 1,672개임.

<도표 3> 변액보험 종류별 상품 수

상품종류	특징	개수
변액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보장성)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며,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기능과 더불어 저축 및 투자기능, 수시입출금기능이 있음	69
변액연금보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주목적으로 함	66
변액유니버설보험(저축성)	장기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며, 투자기능과 수시입출금기능이 결합됨	33
기타(결합)보험	변액적립보험 및 변액CI보험 등, 다른 보험과 결합된 형태	13
합계	공통적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됨	181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2020년 9월말)

2. 변액보험 펀드 운용 현황

- 변액보험자금이 운용되고 있는 펀드(적립금 기준)를 통해 변액보험자산이 어디에 주로 투자되고 있는지, 자산 구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봄.

(1) 현황

- 변액보험 펀드의 총 자산을 투자지역에 따라 나누어 보면 국내 지역(82.8%)에 대부분의 자산이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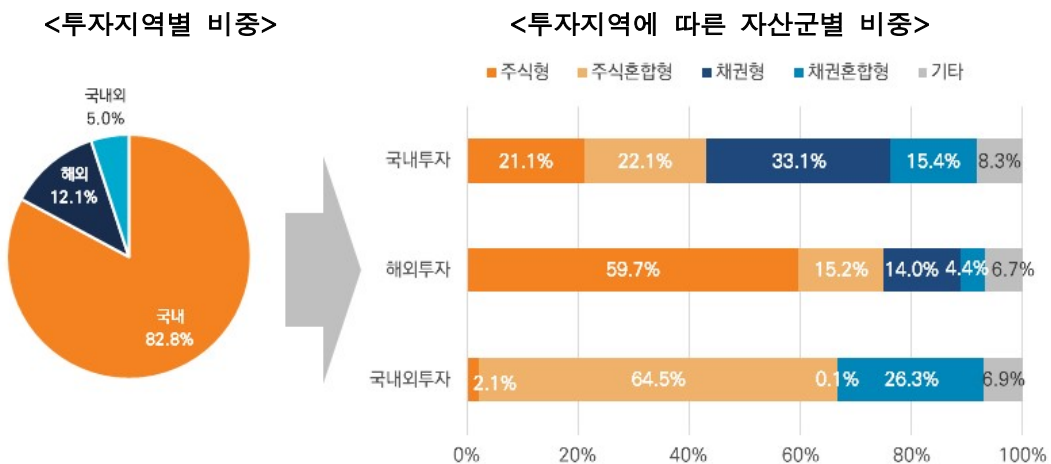
– 2020년 9월 말 기준, 총 105조 가량의 변액보험 펀드 적립금 중 82.8%인 87조 2,345억원이 국내투자펀드로 운용되고 있으며, 해외투자펀드 비중은 12.1%(12조 7,900억원), 국내외투자펀드 비중은 5.0%(5조 2,797억원)임.

- 국내투자펀드는 채권형 비중이 높은 반면 해외투자펀드는 주식 관련 자산이 75%로 주식형에 집중되어 있음.

– 국내투자펀드 적립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채권형(33.1%)으로, 이후 주식혼합형(22.1%) > 주식형(21.1%) > 채권혼합형(15.4%) 순임.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을 합한 비중은 43.2%임.

– 반면 해외투자펀드 적립금의 경우 주식형의 비중이 59.7%로 가장 높고, 여기에 주식혼합형(15.2%)을 더하면 주식 및 주식혼합형에 투자된 비중이 총 74.9%에 달함.

<도표 4> 펀드 유형별 투자 현황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2020.9월말)

※참고: 펀드의 투자지역 및 자산군 구분

- 1) 투자지역: 국내펀드(자산의 60% 이상 국내자산에 투자)
 해외펀드(자산의 60% 이상 해외자산에 투자)
 국내외펀드(자산의 30~60%를 해외자산에 투자)
- 2) 자산군: 주식형(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
 주식혼합형(주식편입비율 50~60%)
 채권혼합형(주식편입비율 50% 미만)
 채권형(주식 미편입,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
 기타(ELS형, 파생상품형 등)

(2)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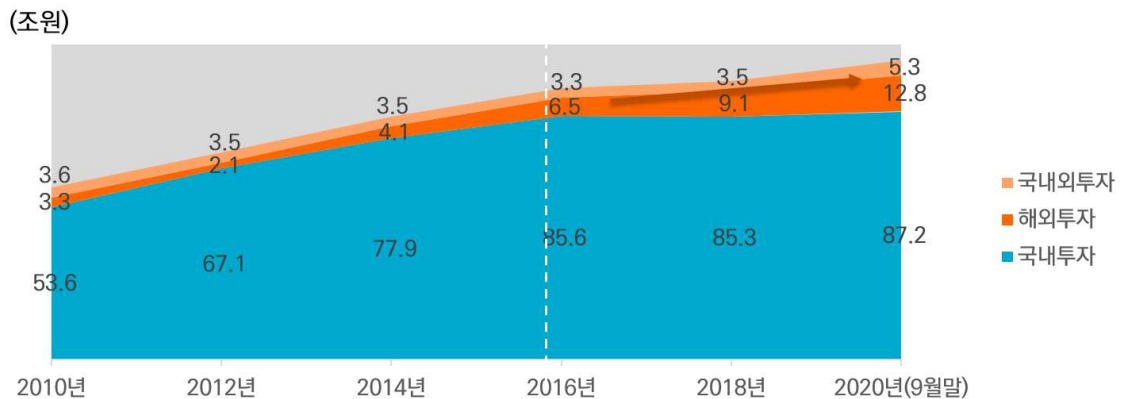
◎ 변액보험 펀드 내 국내투자펀드 적립금은 지난 10년간 53조 6천억원에서 87조 2천억원으로 62.6% 증가했으며, 해외투자펀드 적립금은 3조 3천억원에서 12조 8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함.

◎ 특히 2016년 이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투자펀드 규모는 거의 늘지 않은 반면 해외투자는 6.5조 원에서 12.8조 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여 근래 해외투자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국내투자펀드 적립금은 2016년 85.6조 원, 2020년 87.2조 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반면 해외투자펀드 적립금은 2010년 3.3조 원에서 2016년 6.5조 원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져 2020년에는 12.8조 원 규모로 성장함.

<도표 5> 지역별 투자 추이(2010~2020)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지난 10년간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채권형’으로, 이는 2010년 이후 지속된 금리하락으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주식형(국내)에 비해 안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임.

– 채권형 비중은 2010년 7.2%에서 2020년 29.2%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10~2016년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지난 10년간 등락을 거듭한 국내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은 2010~2015년까지 연 2.1~7.3%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함.

- 평균 연수익률(2010.1~2020.1): 주식 3.3%, 채권 4.3%
- 연수익률 변동성(2010.1~2020.1): 주식 13.2%, 채권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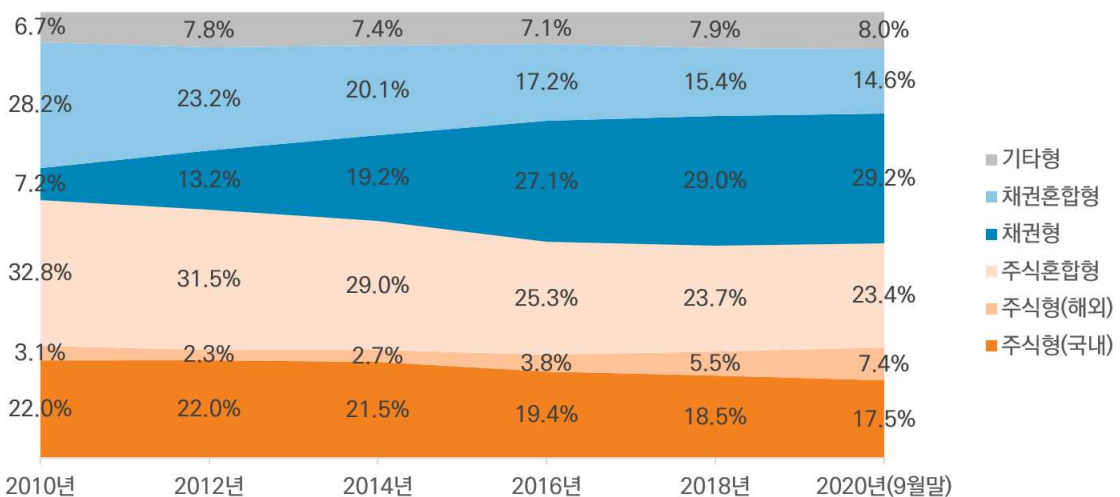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KIS채권평가)

◎ 변액보험 펀드 중 주식형의 금액비중은 2010년 25.1%, 2020년 24.9%로 큰 차이가 없으나, 내부 구성을 살펴보면 국내주식형은 감소한 반면 해외주식형은 두 배 이상 증가함.

– 국내주식형 비중: 2010년 22.0% → 2020년 17.5%

해외주식형 비중: 2010년 3.1% → 2020년 7.4%

<도표 6> 변액보험 펀드 유형별 비중 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III.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분석 기준]

◎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변액보험 펀드를 국내·해외펀드로 구분하고, 그 중 주식형·주식혼합형은 ‘주식’으로, 채권형·채권혼합형은 ‘채권’으로 분류해 총 네 가지 유형(‘국내주식·국내채권·해외주식·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함.

※ 수익률 원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2020년 9월 말 펀드현황 기준

- 위에서 정의한 네 가지 유형은 총 변액보험 펀드 순자산(105조) 중 87.3%(92조)를 차지하며, 펀드 수 기준으로는 56.2%(939개)를 차지함.
- 본 분석에서는 이 중 운용기간이 5년 미만인 펀드는 제외하고, 5년 이상 유지된 펀드 779개(순자산 89.4조)로 분석대상을 한정함.
- 네 가지 이외의 펀드는 투자대상이 파생상품, 커머더티 등으로 다양하거나 국내의 자산이 섞여 있어 의미 있는 분석이 어렵고, 5년 미만 펀드의 경우 중장기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음.

<도표 7> 변액보험 펀드 유형 정의

투자지역	자산군	펀드 수	순자산액 (억원)	유형	5년이상 펀드 수	순자산액 (억원)
국내	주식형	188	183,920	(유형1)	169	183,460
	주식혼합형	132	192,454	국내주식	132	192,454
	채권형	156	288,861	(유형2)	137	283,095
	채권혼합형	117	134,500	국내채권	115	134,464
	기타형	524	72,610		-	
해외	주식형	215	76,350	(유형3)	136	63,582
	주식혼합형	27	19,403	해외주식	22	17,092
	채권형	92	17,951	(유형4)	58	15,261
	채권혼합형	12	5,567	해외채권	10	4,875
	커머더티형	11	1,067			
	부동산형	3	234		-	
	기타형	34	7,327			
국내외	국내외투자 계	161	52,797		-	
합계		1,672	1,053,042	합계	779	894,284

[변액보험 펀드 유형별 평균 수익률]

● 변액보험 펀드의 전체 평균 수익률(순자산 가중)은 2020년 9월 말 기준 1년 7.9%, 3년 7.7%, 5년 21.0% 수준임. 하지만 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며 해외주식의 5년 수익률이 56.3%인 반면 국내주식은 23.0%를 기록함.

－ 펀드 순자산 가중평균 수익률(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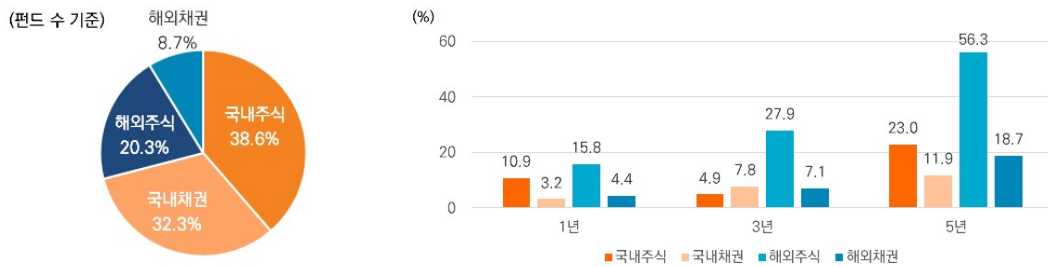
1년: 해외주식 15.8% > 국내주식 10.9% > 해외채권 4.4% > 국내채권 3.2%

3년: 해외주식 27.9% > 국내채권 7.8% > 해외채권 7.1% > 국내주식 4.9%*

5년: 해외주식 56.3% > 국내주식 23.0% > 해외채권 18.7% > 국내채권 11.9%

* 최근 3년 국내주식 수익률이 4.9%로 유독 낮은 편인데, 이는 2017년 9월 말 2394.47 포인트 수준이던 KOSPI지수가 2020년 9월 말까지도 2300~2500포인트 사이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국내주식의 평균적 투자수익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도표 8> 변액보험 펀드 유형별 비중 및 기간별 평균 수익률



1. 유형별·기간별 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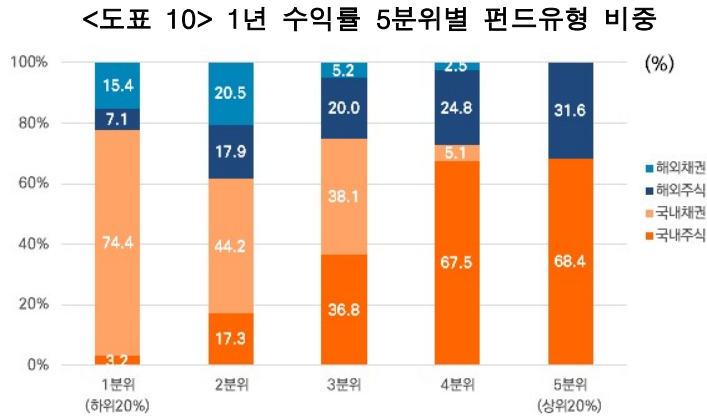
● 수익률 상위 펀드와 하위 펀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 펀드를 1·3·5년 수익률에 따라 각각 5개 그룹(5분위)으로 나누어 분석함.(분석 펀드 수: 779개)

<도표 9> 운용기간별 수익률 5분위 구분 기준

5분위	상위 20%	수익률		
		1년	3년	5년
5분위	상위 20%	12.8% 이상	9.5% 이상	32.8% 이상
4분위	20%	8.2~ 12.8%	6.7~ 9.5%	19.6~ 32.8%
3분위	20%	5.0~ 8.2%	4.9~ 6.6%	13.0~ 19.6%
2분위	20%	1.9~ 5.0%	2.9~ 4.9%	9.4~ 12.9%
1분위	하위 20%	0~ 1.9%	0~ 2.9%	0~ 9.3%

◎ [1년] 최근 1년 수익률은 자산군에 따른 차이가 큰 편으로, 수익률 상위그룹(5분위)은 국내 및 해외주식펀드로만 이루어져있으며 수익률 하위그룹(1~2분위)은 국내 및 해외채권펀드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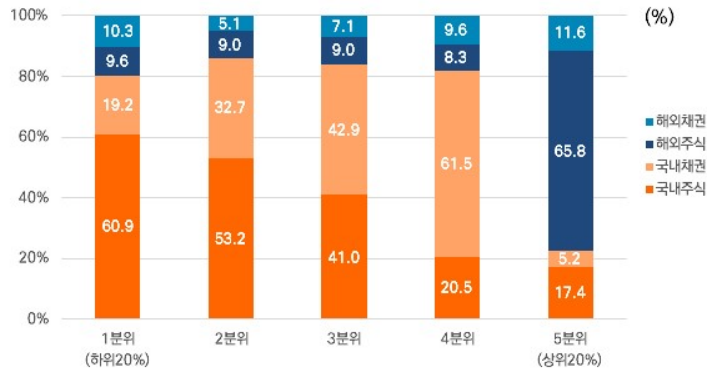
- 1년 평균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국내채권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룹의 74.4%를 차지함. 반면 5분위 그룹에는 국내채권펀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반대로 1년 평균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해외주식펀드는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비중이 크게 증가함.(1분위 7.1% → 5분위 31.6%)
- 국내주식펀드의 경우 4분위의 67.5%, 5분위의 68.4%를 차지했는데, 이는 수익률 상위 그룹(상위 40%)의 펀드 3개 중 2개는 국내주식펀드라는 의미임.



◎ [3년] 최근 3년 수익률의 경우 해외주식펀드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 수익률 상위 그룹(5분위) 내에서 해외주식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8%에 달함.

- 해외주식펀드가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상위 20% 펀드 10개 중 6개가 해외주식펀드임.
- 반면 국내주식펀드의 경우 수익률 하위그룹인 1분위 내 비중(60.9%)이 가장 높고 수익률 상위그룹인 5분위 내 비중(17.4%)은 가장 낮아, 대체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음.
- 국내채권펀드는 4분위에서 61.5%를 차지하고, 3분위에서 42.9%를 차지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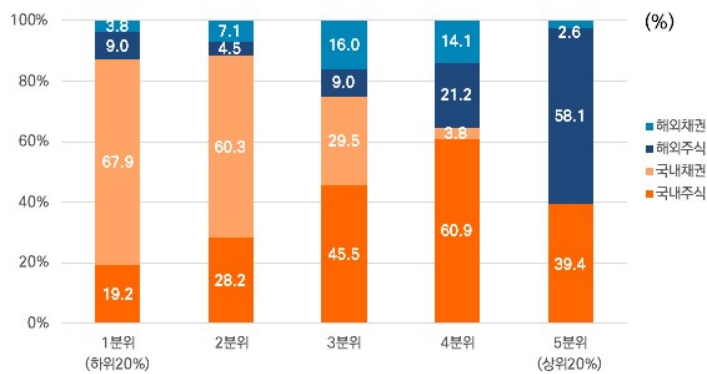
<도표 11> 3년 수익률 5분위별 펀드유형 비중



◎ [5년] 5년 수익률의 경우 투자지역에 따른 차이가 컸는데, 수익률 상위그룹(4~5분위)에서 해외주식펀드와 해외채권펀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하위그룹(1~3분위)에서는 국내주식펀드와 국내채권펀드의 비중이 높음.

- 해외주식펀드는 5분위에서 58.1%, 4분위에서 21.2%를 차지하면서, 수익률 상위 펀드 중 상당수를 점유한 반면, 국내주식펀드의 경우 수익률 상위그룹인 5분위에서 비교적 낮은 비중(39.4%)을 차지하면서 해외주식펀드에 못 미치는 수익률을 보임.
- 해외채권펀드의 경우 5분위내 비중은 2.6%로 낮았으나 3분위에서 16%, 4분위에서 14.1%를 점유하면서, 주로 1~2분위에 위치한 국내채권펀드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였음.

<도표 12> 5년 수익률 5분위별 펀드유형 비중



◎ 변액보험 펀드의 1~5년 수익률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은 4가지 특징이 나타남.

- ①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수익률보다 주식수익률이 높음.

- ②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채권형의 수익률이 낮아짐. 금리하락기에 채권형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향후 수익률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③ 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 ④ 해외채권펀드의 수익률은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다양하게 걸쳐있음. 즉,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 뿐 아니라 개인의 펀드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됨.

2. 펀드유형별 수익률 비교

- **변액보험 펀드는 투자자산이라는 특성상 동일 유형 내에서도 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펀드 수익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수익률의 분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내주식펀드 5년 수익률은 펀드별로 최저 0%~최고 75.8%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해외주식펀드 5년 수익률은 펀드별로 최저 0%~최고 150.7%에 달함.

- **수익률 분포를 통해 개인이 실제로 특정 유형 펀드에 5년간 투자했을 때 펀드를 잘 선택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가 각각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향후 투자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국내주식펀드 2개 중 1개는 10~25% 수준의 5년 수익률을 거두었으나, 해외주식펀드는 수익률이 10~70%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어 국내주식펀드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과 편차를 보임.**

- 국내주식펀드의 중위수익률*은 20.1% 수준으로, 펀드 중 53.2%가 수익률 10~25% 구간에 분포되어 있음.

* 중위수익률: 해당 유형의 펀드를 수익률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함.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보면, 1천명의 투자자가 5년간 임의의 국내주식펀드에 투자했다고 할 때, 5년 투자 수익률 순으로 중간 등수(500~501등)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수익률이 대략 20.1%라고 이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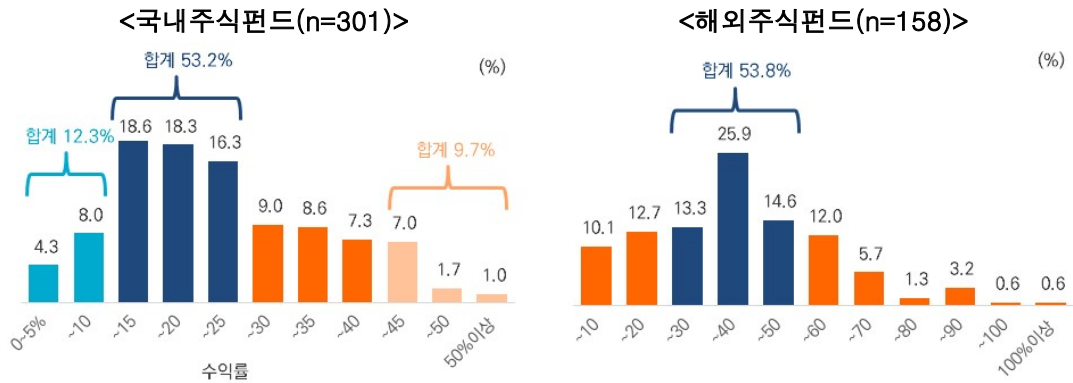
- 국내주식펀드 중 상위 9.7%의 펀드는 40%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인 반면, 하위 12.3%의 펀드는 10% 미만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임.

- 반면 해외주식펀드의 중위수익률은 35.6%로, 대략 절반 정도(53.8%)의 펀드가

20~50% 수익률을 거두었으며 수익률의 분포 범위가 0%에서 100% 이상까지 넓음.

- 즉 국내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비해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1.5~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으며 투자자간 편차 역시 클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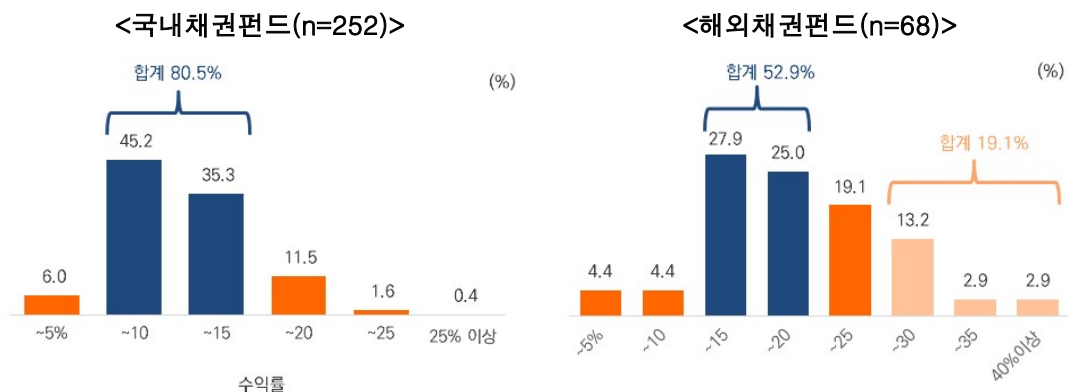
<도표 13> 국내주식·해외주식펀드 5년 투자수익률 분포



◎ 국내채권펀드와 해외채권펀드의 5년 중위수익률은 각각 10.0%, 16.7%로, 해외채권펀드가 국내채권펀드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편차가 큰 편임.

- 국내채권펀드의 경우 중위수익률은 10.0%로, 대부분(80.5%)의 펀드가 5~15%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
- 해외채권펀드는 국내채권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높고 편차도 큰 편임. 해외채권펀드 중 절반 정도(52.9%)는 10~20% 수익률을 거두었으며 25% 이상 높은 수익을 거둔 비율도 19.1%에 달함.

<도표 14> 국내채권·해외채권펀드 5년 투자수익률 분포



3. 보험사별 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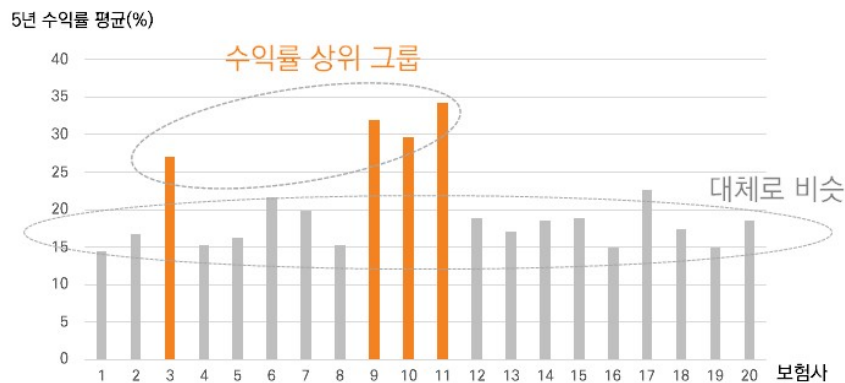
◎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평균 38개의 변액보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보험사별로 5년 평균 운용수익률(순자산가중평균)을 살펴보면 최저 14.4%에서 최대 34.1%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보험사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변액보험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년 이상 펀드 수가 10개 미만인 2개사를 제외한 20개사의 평균 수익률을 분석함.
- 단, 보험사별 평균 수익률은 보험사의 운용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보험사별로 주로 취급하는 변액보험상품의 종류, 고객의 가입시기, 투자성향 등에 따라 평균적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만약 특정 보험사의 변액보험 고객이 전부 채권형 자산을 선호하여 포트폴리오를 채권형 펀드 100%로 구성한다면, 보험사의 운용능력과 별개로 해당 보험사의 평균 수익률은 채권형 펀드 수익률에 수렴하게 됨.

◎ 보험사별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3~4개 보험사의 경우 타사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주식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임.

- 수익률 상위 4개사의 해외주식 비중은 18.5~40.8% 수준으로, 전체 평균(9.5%)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도표 15> 보험사별 5년 평균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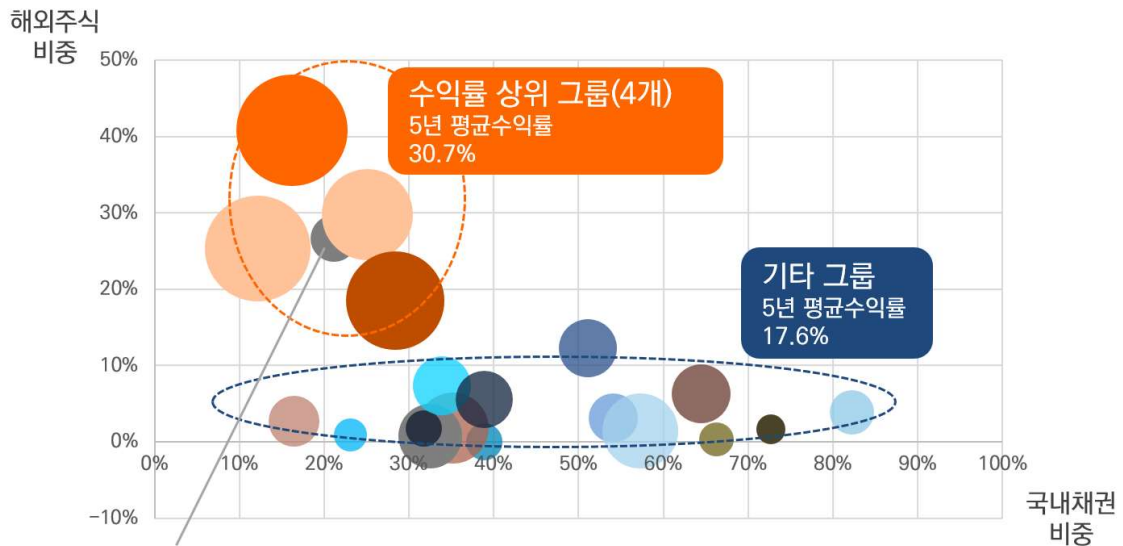


※주: 5년 이상 운용된 국내주식·국내채권·해외주식·해외채권 유형 펀드의 수익률을 보험사별로 순자산 가중평균한 값이며, 보험사 순서는 임의로 나열함.

◎ 수익률과 자산구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보험사를 ‘수익률 상위 그룹’(상위 4개)와 나머지로 나누어 살펴봄. 분석 결과 수익률 상위 그룹은 대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으며 그 중 해외주식 비중이 특히 높고, 국내채권 비중은 비교적 낮음.

- 수익률 상위 그룹의 5년 평균 수익률은 30.7%로 기타 그룹(17.6%)에 비해 13.1%포인트 높게 나타남.
- 수익률 상위 그룹은 주식(국내주식+ 해외주식) 비중이 74.3%로 높고, 기타 그룹은 54.1% 수준으로 비교적 낮음.
- 또한 수익률 상위 그룹은 해외주식 비중이 평균 28.6%로 기타 그룹(4.8%)에 비해 5배 이상 높으며, 국내채권 비중은 평균 20.4%로 기타 그룹(45.0%)보다 낮은 편임.

<도표 16> 수익률 구분에 따른 보험사별 자산구성 및 5년 수익률



※주: 해당 보험사는 비슷한 해외주식 비중을 가진 타 보험사에 비해 평균 수익률이 낮아 '기타 그룹'에 포함되는데, 해당사의 총자산 중 48.8%를 차지하는 국내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타사에 비해 비교적 낮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원의 크기는 해당 판매사의 수익률에서 가장 낮은 판매사의 수익률을 뺀 값으로, 수익률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냄.

구분	5년 평균 수익률	자산구성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합계
수익률 상위 그룹	30.7%	45.7%	20.4%	28.6%	5.3%	100.0%
기타 그룹	17.6%	49.3%	45.0%	4.8%	1.0%	100.0%
전체	20.2%	48.6%	40.1%	9.5%	1.8%	100.0%

IV. 결론

◎ 최근 10년(2010~2020년) 동안 변액보험 자산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징이 나타남.

- 해외투자 증가세가 2016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나 비중은 아직 낮은 편(12.1%)임.
- 금리하락추세로 인해 채권형 비중이 2010년보다 4배 이상 높아져, 향후 펀드 수익률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을 분위별·기간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의 5가지 특징	
5가지 특징	사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형보다 주식형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남	<p>3년 수익률 해외주식 > 국내채권 > 해외채권 > 국내주식</p> <p>5년 수익률 해외주식 > 국내주식 > 해외채권 > 국내채권</p>
장기투자시 해외주식형 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음	<p>5년 수익률 해외주식 56.3% > 국내주식 23.0% > 해외채권 18.7% > 국내채권 11.9%</p>
과거 금리하락에 따른 수익률 상승으로 채권형 비중 증가	<p>국내채권형 비중 2010년 7.2% → 2020년 29.2%</p>
해외채권펀드 수익률은 펀드별 편차가 큰 편	<p>해외채권형 5년 수익률 수익률 0~10% 8.8% vs. 수익률 25%이상 19.1%</p>
주식형과 채권형 모두, 국내에 비해 해외펀드의 수익률이 높고 편차도 더 큼	<p>5년 수익률 중위값 해외주식 35.6% > 국내주식 20.1% 해외채권 16.7% > 국내채권 10.0%</p>

◎ 변액보험 가입자는 수익률 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금리하락기에 채권형 비중을 늘린 가입자라면, 제로금리 시대에 펀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므로 수익률 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려해야 함.
- 국내펀드에 비해 해외펀드의 장기수익률이 우수하므로 국내투자에만 집중하기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수익률 향상을 도모해 보는 것이 좋음.
- 특히 해외주식이 장기적 성과향상에 기여도가 크므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다만, 해외펀드의 경우 개별 수익률의 편차가 큰 편이므로 우수한 펀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수익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자산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글로벌로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3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4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투자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38] Next 20년,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일본의 '과거 20년'이 주는 교훈, 2018.11

[39] 은퇴자를 위한 피사의 4탑, 2018.12

[40] 초장수시대의 노후자산 운용, 2019.7

[41]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2019.8

[42]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2019.10

[43]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2019.11

[44] 초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 5대 전략, 2019.11

[45] 변액연금의 진화와 노후자산관리, 2019.12

[46] 밀레니얼 세대, 新투자인류의 출현, 2020.7

[47] 5060 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 2020.9

투자연금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투자연금리포트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